

6.6만호 규모의 남양주 왕숙 신도시 착공

- 광역교통 등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높여 수도권 핵심 성장거점으로 조성 -
- '24년 하반기 본청약 개시...「9.26 공급대책」에 따라 주택공급 정상화 견인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0월 15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일원에서 남양주 왕숙 신도시*의 첫 삽을 뜨는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.

* (왕숙1) 938만m²(여의도 3.2배), 5.2만호 / (왕숙2) 239만m²(여의도 0.8배) 1.4만호

○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, 남양주시,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, 경기주택도시공사, 남양주도시공사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□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인 “남양주 왕숙 신도시”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뉴:홈 2.5만호를 포함하여 주택 6.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,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'24년 하반기 분양을 개시하고, '26년 하반기부터는 입주가 시작된다.

○ 또한, 남양주 왕숙 신도시는 GTX-B와 지하철 9호선 등으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며, 역세권 주변으로 주거와 일자리, 교육·의료·문화 등 도시 인프라를 융·복합하고 콤팩트하게 배치할 예정으로, 주민 누구나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정주 여건을 누릴 수 있게 된다.

□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“우수한 정주 여건을 가진 왕숙 신도시는 인재와 기업들이 모여드는 경쟁력있고 매력적인 ‘지역 성장거점’이 될 것”이라며, “정부도 왕숙 신도시가 수도권 핵심 생활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라고 밝혔다.

□ 이와 함께, 원 장관은 “10월 15일 남양주 왕숙 지구 착공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, 하남 교산, 부천 대장 4개 지구(합계 15.4만호)가 계획대로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착공에 돌입할 계획”이라며,

- “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, 국민 주거안정을 확보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- 정부는 「9.26 공급대책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3기 신도시의 차질없는 공급을 비롯해, 국민이 선호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이루어 나갈 예정이며,
 - 현장의 발주-설계-시공-감리 등 단계별 담당자들이 ‘시공 품질과 안전 최우선 원칙’에 따라 사업주체로서 책임 의식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하고 면밀하게 사업을 관리할 계획이다.

담당부서	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협력과	책임자	과 장 이상옥 (044-201-4937)
		담당자	사무관 하태아 (044-201-4526)
			사무관 위성화 (044-201-4443)
			주무관 이근복 (044-201-3356)



<남양주 왕숙1 지구>

□ 사업 개요

- 지 구 명 :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
- 위 치 :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, 진건읍, 퇴계원읍 일원
- 면 적 : 938만 m²(284만평) *기업이전단지 (진건1) 270천m², (진건2) 453천m²
- 세 대 수 : 52,380세대(130,988인)
- 사업기간 : 2019. 10 ~ 2028. 12
- 시 행 자 : 경기도, 한국토지주택공사, 경기주택도시공사

□ 추진 경위

- '18.10.26. :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(LH→국토부)
- '19.10.15. :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정
- '21.08.31. : 남양주왕숙 지정 변경(1차) 및 지구계획 승인
- '22.09.16. : 남양주왕숙 지정 변경(2차) 승인
- '22.11.09. : 남양주왕숙 지구계획 변경(1차) 승인

□ 위 치 도



